

경기도, ‘한봉 꿀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지원’ 추진

꿀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 기여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한봉 (토종벌) 꿀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한봉 꿀 브랜드 제품의 품질 안정성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벌 산업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지원자격으로는 한국한봉 협회 등록회원으로 ▲봉군수 50군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연 1회 이상 한봉 교육 이수자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며, 올해는 총 30개소의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천9백만원으로 도비 80%,

자부담 20% 비율로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꿀 제품 품질검사(유전자검사, 성분검사 등) ▲포장재 제작 및 용기·디자인 개

선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한봉농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브랜드 고급화를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한봉 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봉 꿀에 대한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토종벌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와 남충봉아부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토종벌 산업의 보호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지난 1월 ‘한봉 꿀 브랜드 생산·유통기반 지원사업 수행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심사를 통해 2월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시군에 공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할 한봉농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영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한봉사진(경기도청제공)

여주시, 농업현장 맞춤형 실증연구로 소득 증대 나서

2026년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 연구과제 추진 보고회 개최

여주시는 1월 23일 이종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 연구과제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은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증연구를 통해 해결하고, 연구 결과를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주시는 2026년 경기도농업기술원 도비사업으로 총 1억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확보하여 “발작물용 생분해 멀칭필

름 실증시험” 등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은 경기도 내

38개 시·군 중 여주시가 10개소를 우선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여주시는 ▲2025년 9



▲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사업연구과제 추진 보고회

월 가남읍·금사면 현장평가회 개최 ▲11월 성과발표회 및 성과보고 자료집 발간 ▲12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종합평가회에서 우수과제 발표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연구과제 10건에 대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우 여주시장은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사업은 농업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실증 중심의 연구를 통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농업기술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여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이 불가하며,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고려해 육묘 단계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마련한 사업”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령농업인의 육묘 부담을 줄여 영농 초기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적기 모내기를 통한 벼 생산 안정과 연천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경산 농산물, 미국 시장 수출 확대 업무협약 체결

ESU-경산시-다금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수출협약

경산시는 22일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농산물 유통기업 ESU, 다금영농조합법인과 사인머스켓을 비롯한 경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ESU의 Tommy Suh 대표, 다금영농조합법인 임연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경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ESU는 2010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 매출 6,700만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12개국의

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미국 전역에 유통하는 기업체로, 이번 협약으로 미국 시장에 경산 농산물을 적극 홍보·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ESU와 경산시, 다금영농조합법인간의 3개 기관이 체결하였으며, ESU는 미주 지역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경산시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협력하고, 경산시와 다금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금영농조합법인 임연식 대표는 “경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및 규격에 적합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경산 농산물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수출 물량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 판로 다변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앞장’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 본격 운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분석지원을 연중 운영하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3~24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첨단 분석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농산물 출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출하 전 단계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원시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앞장’(시료수거)

지난해 11월 시작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출하 10일 전까지 안전분석실을 방문해 농산물 시료와 농업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의뢰하면 3~7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생산 농산물은 연 2회까지 무료로 분석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향후 부적합 농산물 ‘제로화’를 목표로 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이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학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로 남원 농산물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전라남도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2025년 12월까지 누적임대료 감면액은 165억 원으로, 총 5만

2천 농가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79개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며 농용굴착기, 트랙터, 관리 등 기종과 관계없이 모든 임대 기종에 50% 감면 적용된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복한농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7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F 한국농어촌공사